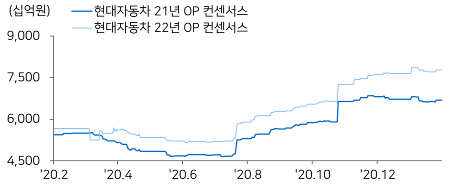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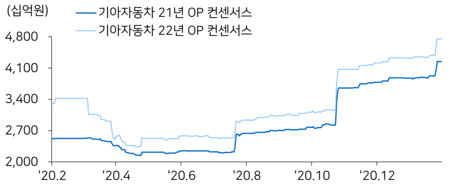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1.2.3(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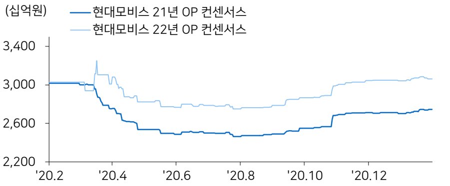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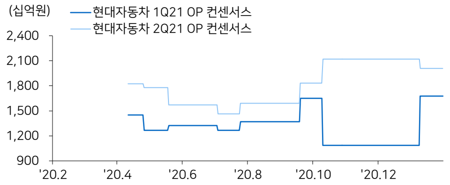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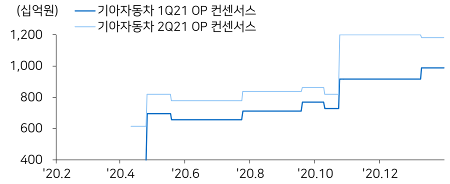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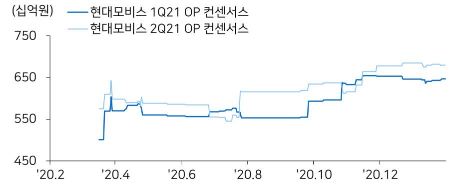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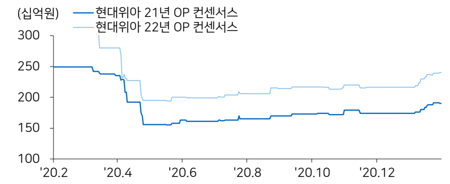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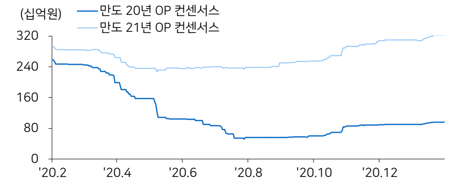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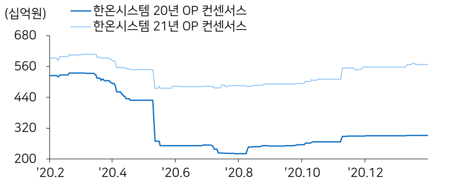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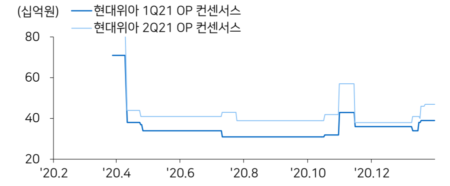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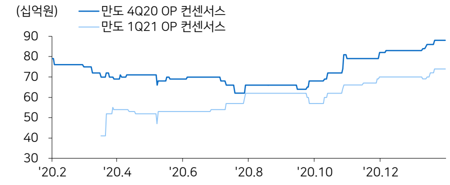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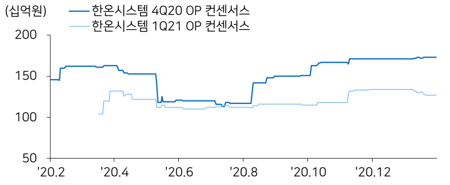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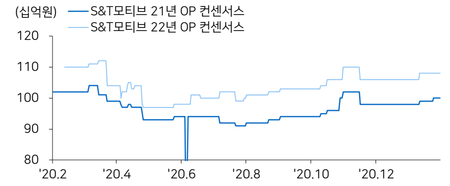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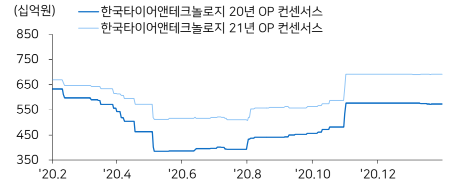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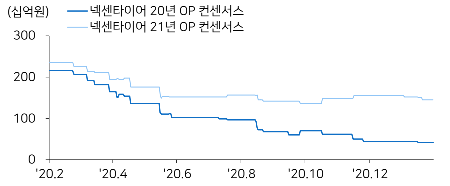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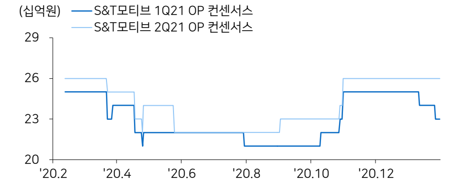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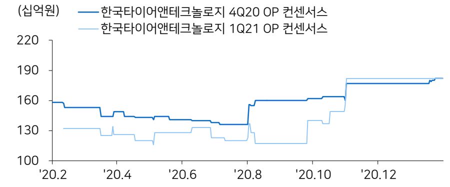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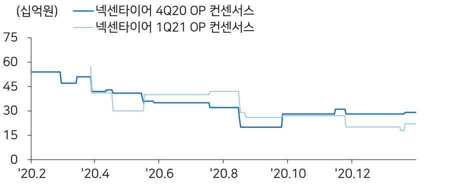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의 미래 모빌리티…'UAM-PBV' 연계 구축 나선다 (디지털타임즈)

기아가 싱가포르에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사업 기반 구축에 나서면서 사명 변경 후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첫 발을 내딛음. 정의선 회장은 싱가포르를 전진기지로 삼아 이번 사업을 통해 UAM-PBV-허브 솔루션 기반을 구축할 전략.
https://bit.ly/3anPLjg

기아, 배달 PBV 사업화 박차...콜드체인 스타트업과 실증 착수 (서울경제)

기아는 콜드체인(냉장물류) 스타트업 에스랩 아시아와 라스트마일 딜리버리(Last-mile Delivery)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실증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https://bit.ly/3awJMJb

獨, 테슬라 배터리공장에 10억유로 지원…아시아 기업 견제 (UPI뉴스)

유럽연합은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라는 배터리 사업을 통해 29억 유로를 투자하는데, 이중 테슬라는 1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됨.
https://bit.ly/39F393g

테슬라,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13만5000대 리콜 (조선비즈)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교통안전국(NHTSA)에 이 같은 내용의 리콜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냄. 앞서 NHTSA은 테슬라 모델S와 모델X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MCU) 결함으로 리콜을 요구한 바 있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3/202102030000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Kuo adds fuel to Apple-Hyundai electric car rumors (The Verge)

TF Securities analyst Kuo has corroborated reports that Apple and Hyundai are working together on an electric car. Apple's first car will be based on E-GMP platform for battery-powered electric vehicles.
https://bit.ly/3ttplpd

현대차 첫 그린본드…2.1조원 몰렸다 (아시아경제)

현대차가 이날 30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예측에 2조10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림. 현대차는 발행 금액의 증액을 검토 중이며 마련된 자금은 친환경차 사업에 투입될 예정.
https://bit.ly/3oCnXg8

현대모비스, 작년 특허 출원 2,100건…절반이 미래차 (서울경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국내외에서 출원한 특허가 2,100건을 넘어섰다고 2일 밝힘. 지난 2018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2019년에 비해서는 2배가량 증가한 실적.
https://bit.ly/3atfdDZ

작년 전기차 시장, 유럽이 중국보다 커졌다 (연합뉴스)

적극적인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 부상함. 지난해 주요 유럽 시장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33만대였으나 중국의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는 125만대를 기록.
https://bit.ly/36BVQH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